

전두환 5·18 관여 보안사 보고서 발견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직무유기 구속 보고서에 친필 서명 김희송 교수 공개... 전문가들 "목포상황 중시하고 직접 챙긴 것" 이 서장 파면 후 보안사 구공·고문 투병 사망...5·18 유공자 인정

'5·18 민주화운동에 관여한 바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문서가 발굴됐다.

이 문서는 고(故) 이준규 80년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에 대해 직무유기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전 대통령은 이 문서의 표지에 친필로 서명하며 5월 관련 사안을 쟁점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가 보존하고 있는 '직무유기 경찰관 보고'(職務遺棄警察官報告) 문서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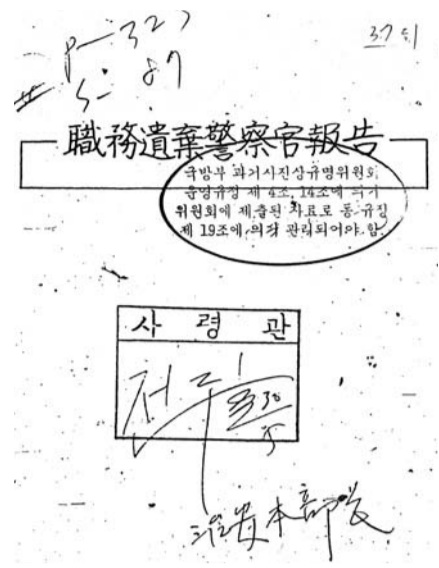
모두 3쪽으로 구성된 이 문서 첫장에는 한자로 된 문서명과 함께 사령관 결재란이 있으며, 결재란에는 이름 첫자인 '전'의 받침 'ㄴ'을 길게 늘여 쓴 전 전 대통령 특유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다. 결재란 밑부분에는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치안본부장' 이 한자로 적혀 있다. 이는 치안본부장에

게 실행하라는 별도 지시로 추정된다.

문서의 본문 2,3쪽에는 '직무유기 공무원 인지 보고'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이 판단한 이준규 목포서장의 직무유기 내용을 일자, 시간대 별로 나열하고 있다.

'이 서장은 1980년 5월21일 오전 11시 지역 대책 회의에서 목포 외곽 저지선을 보호하기로 합의했지만 사복 경찰관 3명만 배치해 시위대를 통과시켰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시위가 격해지자 이날 오후 9시경 경찰 경비정을 타고 하도르 피신해 5월23일 오전 10시경 복귀했다고도 적고 있다.

또 '5월27일 오전 11시경에는 송동섭 신임 전남도경국장이 초도 순시로 목포시를 방문해 이 서장에게 '학생 소요사태 악화 시 자위권 행사 여부'를 묻자 답변하지 못해 힐책 받았다. 5월28일 오전 6시경에는 31사단 93연대장이 목포역 정자에 시위대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토록 지시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1980년 당시 보안사 존안자료.

사후 보복을 우려해 기피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조치 권의로 '계약사에서 구속조사'를 적시하고 있다.

결재 이 서장은 파면된 뒤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90일 동안 구공·고문당했고 5년간 투병하다가 1985년 암으로 사망했다. 유족이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지난 6일 국가

보훈처에서 5·18유공자로 인정받으며 뒤늦게 명예를 회복했다.

5·18 전문가들은 전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는 문서가 많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전 전 대통령이 목포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고 직접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해직된 안병하 전 전남도경국장에 대한 군부의 조치와 관련된 보안사령관(전두환)의 결재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희송 교수는 "이 문서는 보안사가 1980년 당시부터 비위경찰 조치사항으로 분류해 보존할 만큼 신중부 입장에서는 중요했던 것 같다"며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5·18과 관계없다는 전 전 대통령이 했던 역할을 밝혀주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에 5·18 관련 단체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 선고로 오는 9월13일 내려질 전망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은행원 기지로...보이스피싱 송금액 검거

광주광산경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 총책에게 전달하려 한 송금액 김모(2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망을 본 여자친구 전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경 광주시 광산구 모 은행에서 피해자 3명을 속여 빼돌린 2800만원을 통장명의로부터 전달받아 총책에게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원인 A씨는 이날 김씨가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와 며칠새 송금된 돈을 전부 찾으려고 한 점과 이를 수상히 여겨 물어보자 답변이 허술한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범죄 전과가 있던 김씨는 최근 자동차 수·출입하는 회사의 고액알바 문자를 받고 1건당 1~5%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뒤 현금을 찾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공모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융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보조금 1억 빼돌린 공예협동조합 이사장 구속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광주 모 협동조합 이사장 A(5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3~2017년 광주시 보조금 1억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 진흥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받아 기념품 공모전 등을 광주 시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했다.

이 기간 이 명목으로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총 14억700만원이다.

그는 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 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씨가 횡령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 조치하도록 광주 시에 요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국립대 첫 민자사업 실패 부산대 770억원 물어야"

대법원, 학내 쇼핑물 관련 판결

국립대 최초로 민간자본으로 학내에 쇼핑물을 건립한 부산대가 민간사업자의 대납보증을 썼다가 770억원 이상을 국민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는 농협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부산대가 대출금 40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하고 부산대가 효원이앤씨로부터 쇼핑물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 농협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부산대는 2006년 국립대 최초로 민간사업자인 효원이앤씨와 계약을 맺고 학내 쇼핑물인 효원굿플러스(구 효원회

관)를 짓기로 했다.

효원굿플러스 소유권은 부산대가 가지지만 효원이앤씨가 2039년까지 위탁운영하는 계약이었다.

400억원을 빌려 효원굿플러스를 지은 효원이앤씨는 이후 분양이 잘 안 돼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대출금 400억원도 갚지 못하자 부산대가 나섰다.

2010년 효원이앤씨가 농협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는 과정에서 부산대가 대납보증을 선 것이었다.

효원이앤씨가 이후에도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2013년 농협은 보증을 선 부산대가 대신 변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 이어 이번엔 대법원에서 도 승소했다.

/연합뉴스

여동생은 주인 주의 끌고 오빠는 돈 훔치고 '절도 남매' 경찰서행

○...성인게임장에서 역할을 나눠 금품을 훔친 40대 전남매가 나란히 경찰서행.

○...2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고모(46)씨와 여동생(43)은 지난 5일 오전 8시30분경 광주시 북구의 한 성인게임장 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420만원

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여동생이 게임기기를 켜달라고 게임장 주인의 주의를 끄는 팀을 이용해 고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고씨는 경찰에서 "생활고로 시달리다 범행을 결심했고 동생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24일 밤 광주시 서구 벽진동의 한 식품 창고에서 불이나 창고 건물 1동이 전소돼 김 9000박스과 다시마 20톤 등이 소실됐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고물 더미 불 번져 가공유통업체 창고 전소

지난 24일 밤 9시15분경 광주시 서구 벽진동 폐자재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고물상 옆 수산물가공유통업체 창고로 옮겨붙어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3시간 20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건물 1개 동

과 내부에 있던 김 9000 상자, 다시마 20t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10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불은 고물상 내 자동차 부품 더미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유통업체는 광주시와 서구청에 수

차레에 걸쳐 폐기물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3000㎡ 면적의 고물상에는 2005년 9월 A씨가 운영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들어섰다.

A씨는 국가하천정비사업 용지에 편입되면서 2011년 12월 1억원가량 보상금을 받고 땅 소유권을 광주시로 넘겼다.

이후 A씨는 고물상에 방치한 폐기물을

치우지 않았고 2015년 1월 검찰에 고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처벌을 받았다. A씨는 현재 주소가 분명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밤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가열된 폐기물 더미에서 저절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원인을 파악 중이다.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조사가 들어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총 14개 (월수익 550만)

④ 전대정동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택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물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인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신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010-7384-7800

010-6670-9800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할 (경매 직원,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